

2019년도 표어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사 30:23)

NEW  
**순복음Life**  
제42호

발행일 : 2019.10. 6.  
발행인 : 한승권 목사  
위원장 : 김미진 집사  
발행처 : 문서위원회

**제가 기도해왔던 것처럼  
저에게 적합한 과인  
이 길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고  
항상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김은희청년-**

먼저 간증할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과 집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것보다는 저의 대학 입시 이야기를 하는게 좋을 듯하여 그때의 일들을 잠시 동안 펼쳐놓겠습니다. 사실 언제 한번은 간증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약간 늦은 감이 없지 않네요. ㅎㅎ 거의 일 년 전 일이라 생생하진 않지만 최대한 기억을 살려보겠습니다^^ 저에게도 오지 않을 것 같았던 고3이 오게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꿈이 없고 그냥 운동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 뿐 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고3이 되어 선생님과 상담도 하고 입시를 코앞에 두고 나니 현실적인 학과로 확실히 정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때부터 불안하기 시작하여 성전 밟기와 여러 학과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물리치료과 놓고 기도하고 계셨지만 사실 저는 물리치료과가 자신도 없었고 가고 싶다는 생각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 적합한 학과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했습니다. 결국 수시1차 때 물리치료는 딱 하나 쓰고 임상병리,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 이런 계열로 여러 곳에 나누어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 의료 계열로 선택한 이유는 나중에 안정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합격한 곳도 있긴 했지만 거리가 멀어서 다른 학과에 대해서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안경광학과라는 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과에 대하여 알아볼수록 아! 수시2차 때는 다 여기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들도 그렇고 주변에서 대학을 당진으로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신성대 안경광학과로 쓰려고 하는데 수시2차는 원래 1차에 비해서 뽑는 인원이 적어 딱 1명만 뽑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와~~~ 여기다. 이 한 자리가 바로 내가 들어갈 자리다. 내가 기도하면서 찾던 학과가 바로 여기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하고 기다리며 접수 현황을 보는데 계속 지원자가 저 한명 뿐이었습니다. ‘와 이걸 진짜 나를 위해 예비된 자리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드디어 발표 날이 되었습니다. 결국 1명만 뽑는 자리에 저 혼자만 지원해서 붙게 되었습니다. 생각할수록 신기하기도

했고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이 학과에 들어가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하던 중에 수시 2차까지 다 끝나고 추가합격 전화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신성대에서 전화가 왔길래 임상병리 넣었던 게 있어서 그거인가 했더니 물리치료과 추가합격 했다고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사실 물리치료과는 놓여준 전형으로 넣은 거라 한 두 명만 뽑는데다 심지어 제가 예비 10번이라 최근 몇 년간 예비 10번까지 들은 적이 없었기에 기대는 물론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화 받자마자 놀랐습니다. 안경광학과에 이어서 이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합격 할 수 없는 학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는 것을 이 일을 통하여 다시한번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기도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는지 또 새삼 느끼게 되면서 엄마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 길은 안경광학과가 아니라 물리치료과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학과에 입학할 하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추가합격 된 곳이지만 정말 열심히 공부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이러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입학하고 초반에는 크고 작은 죄들을 지으면 찔림이 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뎠습니다. 처음 다짐처럼 신앙으로 열심히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짓는 죄들이 많아졌습니다. 사실 제가 티를 내지 않아서 주변 사람들은 잘 몰랐겠지만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나' 싶을 정도로 근래에 좀 크고 작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화도 나고 그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요즘 너무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냥 대충 넘어간 일들이 너무 많았나 싶어 잠시 뒤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 유초등부 교사를 하며 여름성경 학교, 헌신예배를 계속 준비할 때 아이들을 통해서도 제 자신을 뒤 돌아 보고 반성하게 되는 계기도 있었습니다. 또 제가 무언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나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처음 물리치료과에 왔을 때는 잘 왔는지 아님 정말 내 길이 맞는지 잘 몰랐지만 지금 현재는 이 과에 온 것을 매우 만족하고 주어진 길을 열심히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노력할 것입니다. 제가 기도 해 왔던 것처럼 저에게 적합한 과인 이 길을 허락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고 항상 말씀대로 살아가길 노력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1. 집사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신을 멋지게 소개 해 주세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나고 물어보시니 제 자신을 뭐라고 해야 하나 망설여 지네요. 저는 제 자신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신념은 강하고 생각도 많은 것 같고요. 달리 멋지게 표현하지는 못 하겠네요. 환경에 지배를 많이 받는 편이고요. 진지하게 나 자신을 대하기가 힘이 드네요.

2. 집사님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세요? 집사님의 일상이 궁금해요.

요즘은 실업 급여를 받고 있어서 쉬고 있는데 나에 대한 보상을 잘 하는 편이라 일이 없으면 tv시청을 합니다. 또 마음이 힘들 때면 옛날 찬양 예배(유트브)로 돌려 가면서 듣습니다. 그리고 쓸쓸할 때는 박진희(찬양사역자)의 찬양을 듣습니다.

3.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신앙생활은 어렸을 적 유치부 시절부터 했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집이었으니깐요. 지금의 우리 유치부 아이들처럼요. 그러고 보니 정말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았네요.

4. 9월의 표어가 ‘자신의 담장을 뛰어 넘으라’입니다. 집사님은 무엇을 뛰어 넘으시겠어요?

9월의 말씀이 제게는 버겁지만 그래도 도전 해 볼 겁니다. 그런데 제겐 담장이 너무 많아요. 통틀어서는 환경의 담장! 내가 사는 환경이겠죠! 기도할 때 조목조목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감당 할 수 있는 힘과 뛰어 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5. 우리교회에 꼭 필요한 물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있었으면 유용하다 싶은 것 말씀 해 주세요.

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교회 성도들도 이전같이 젊지만은 않더라고요....그렇게 어리게만 봤던 성도들의 얼굴에도 감쪽한 주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도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관리를 조금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혈압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찾아도 봤는데 생각보다 종류가 많고 어떤 것이 어르신들까지 기계 다루는데 어렵지 않을까 고민하다보니 선택하기가 여간 어려운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고민만 하다 말았습니다.

6. 오심을 훌쩍 넘으신 나이가 되셨어요. 자신의 인생에 점수를 드린다면 몇 점 주시겠어요?

점수를 주고 싶지 않아요. 거의 후회뿐이거든요. 그래서 점수보다는 기도를 해요. 감사가 생각나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감사하며 살고 있구요. 내게 주어진 내 모든 삶을 사랑할려구요.

7. 올해도 벌써 하반기 시월의 문턱에 이르렀네요. 올해 잘한 것이 있으신지요? ( 가정적으로 , 신앙적으로 )

올해 그나마 쉴 수가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감사하면서 영성의 회복을 위해 기도한 것이 잘한 것 중 한가지네요. 기도 쉬는 죄를 많이 범했기 때문에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깨어 있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심야기도회에 몇 번 참석했는데 옛날에는 뜨겁지가 않아서 피했었는데 좀 달라졌드라고요. 기도할 때 끊겨 버리면 다시 하기 싫어서 철야 때 안갔었는데 요새 참석해보니 뜨겁더라고요(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때 저의 영성 문제이기 쉽습니다) 그리고 친정 다녀왔어요. 7년 만인 것 같네요. 선산, 바닷가 등등..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거기 가서 살고 싶다고 아이들이 이사 가자고 하네요. 나는 엄청 힘들게 밥만 해주고 왔는데.. 힘들었지만 뿌듯했어요. 섬이라서 이리가도 바다 저리가도 바다였어요.

8. ‘우리 성도들에게 바란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무엇을 바라고 보다는 다들 너무 잘 하세요. 제가 더 열심히 따라 가야죠. 성도님 한분 한분이 너무 감사해요. 제가 처음 우리교회에 왔을때요. 그때 젊은 집사님들 보고 많이 놀랐었어요. 먼저 섬기던 교회 집사님들하고 다르게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모습에서요. 그때 집사님들의 열정 있는 모습은 저에게 아주 충격이었고 따라가고 싶고 오르고 싶은 언덕이었습니다.

9. 내가 만든 음식 중에서 감탄이 절로 나왔던 요리는 무엇일까요?

옛날에 분식집에서 일했기 때문에 고급진 음식은 못 해요. 이번에 친정 갔는데 오빠가 민어를 준비했더라고요. 회를 뜨고 나머지는 마당에 있는 가마솥에 달였는데 뽕얀 국물이 사골 같았어요. 진짜 맛있었는데..... 집에는 아이들만 있다 보니 그런 요리를 안 하지요.

10. 집사님께 십억이라는 축복이 내려지면 그것으로 무엇을 하시겠어요?

제일 먼저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헌금 드릴 겁니다. 나머지는 집을 사고 남은 돈으로 궁핍하지 않게 살면서 전도에 열중해야지 하는 생각을 해 봤네요. 노후에 생활 할 수 있는 물질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사실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거 이제는 지치고 싫거든요.

11. 건강은 어떠세요? 특별히 연약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나이 인지라 조금씩 연약 해 지는 부분은 있어도 딱히 크게 아픈 데는 없는 것 같아요. 다 주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주시는 축복 중에 제일 좋은 것 주셨습니다. 건강의 축복 말입니다. 주변에 보면 제 나이 때 사람들 어지간히 병원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때껏 병원에 가본 적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 부분을 주변에서 많이들 부러워합니다.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물질의 축복도 주시면 엄청 더 감사하겠습니다.....

12. 성도들이 여행을 종종 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선선해져서 여행하기 딱 좋은 요즈음 집사님은 누구랑 어디를 꼭 가고 싶으신지요?

성지순례요. 바울 선교 여행지는 다녀왔는데 이스라엘도 다녀오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과 함께 교회 성도님들이랑 가고 싶습니다.

13. 요즘 성형수술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집사님은 수술하신다면 어디를 고치시고 싶으세요?

다 고치고 싶어요^^ 지금 언니랑 쌍꺼풀 하자고 약속해 났어요. 어렸을 적에는 엄마가 이쁘다고.... 뭘해도 이쁘다고 칭찬만 해 주셔서 몰랐는데 서울에 와서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내 눈이 안 이쁘고 쳐져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잘 몰랐었지요. 저는 못생겨서 시집도 못갈 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아빠를 만났지요... 하~ 차라리 안 만났으면 더 좋았을 것어요. ㅋㅋ 그런데 아이들 아빠가 인물이 좋아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의 결실들이 다 뜯어고치고 싶은 제 얼굴보다 훨씬 예뻐서 다행입니다.

14. 자신의 성격의 장단점을 말씀 해 주세요. 집사님은 집사님의 성격이 마음에 드시는지요?

음.. 딱 단정 짓지 못하겠네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던데요. 욕하기도 하지만 우유부단했다가 마음먹으면 결단력이 있기도 하고....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성격이고 그것도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 같아요.

15.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둘째가 어렸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때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아이에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때가 가장 정신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아이에 투병을 생각하면 내 힘듦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두 자녀가 세상이 좋다고 세상을 좇아다니네요. 이것이 또 근래에 저를 짓누르는 힘듦에 과정입니다.

16. 자녀들이 모두 장성하였습니다. 이때까지 키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자녀들에게 서운한 것 한 가지, 고마운 것 세 가지 부탁드립니다.

우리 큰 딸은 고마운 것이 많죠~ 대학생 때도 믿는 사람 만나야 한다고 하면 알았다고 대답을 해 줬어요. 첫 열매 드릴 때도 결혼식 축의금 십일조 드릴 때도 뭐든지 엄마가 한다고 하면 알았다고 순종한 것이 고마워요. 그런데 둘째하고 막내는 첫째처럼 그렇게 순종을 안 해서 서운해요.

17.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일 참 많으셨지요? 눈물 나게 감사했던 일 한 가지만 이야기 해 주세요.

감사한 것이 너무나 많죠. 그중 탈 많고 죄 많은 이 죄인을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으니 범사에 감사하고요. 무엇보다 둘째 딸 그 큰 사고로부터 생명 지켜주셔서 지금 제 곁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한 이들의 영혼 구원의 복 주셔서 제 앞길에 더욱 살아갈 힘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감사합니다.

# 웃는 찬양은 기쁨의 찬양입니다!

예배 찬양단, 다윗 찬양단, 아삽 찬양단, 놀노래 찬양단 그리고 반주...



예배 전 언제나 은혜로운 찬양으로 성도들이 예배를 준비 할 수 있게 인도하는 찬양단을 마음껏 아주 많이 칭찬합니다. 윤희자 전도사님을 중심으로 노련미 넘치는 집사님들 몇 분과 대부분은 학생과 청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 분기마다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주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니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이 사역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크신 은혜이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구성원이 어른에서 청년 학생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넓어서 시간을 맞추어 함께 모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이라면 의당 희락을 좇아 유흥을 따라가는 자가 많겠지만 우리 찬양단은 저들이 말하는 황금같은 주말을 고스란히 주님께만 헌신합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그리고 주일에 이르기까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찬양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을 헌신하며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찬양단에게 감사하기 바랍니다. 또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이들 가운데 충만히 내려지기를 함께 기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누구보다도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찬양단의 소식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 기도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어진 모든 삶,,,,,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은혜로 살면서  
이 하루도 벌써 저뭉어 갑니다.

그러나 주님!  
온전히 말씀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나약해진 육신은 편의를 좇아 세상에 못둔고  
나약해진 마음은 세상의 유혹에 무너져  
주님께 나아가기를 게으리 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 하신 주님!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나가오니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죄악들을 이겨낼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신의 담장을 뛰어 넘으라는 말씀에 나태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높이 더 높이 뛰어 넘는  
저의 모든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몸 된 주님의 이 교회가  
말씀의 반석위에 굳건히 세워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모습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 증인 되라 하신 그 말씀은  
이제 제게 주신 주님의 부탁에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노력 없이 저절로 살아지던 제 삶은  
어느 새 한해에 끝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 주님의 증인 된 삶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늦기 전에 몸 된 주님의 이 교회를  
더욱 풍성히 채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조은희 권찰

## <다니엘 유초등부 소식>

점점 일교차가 커져가면서 감기에 걸리기 쉬운 날씨가 되가는 9월. 잘 마무리 하셨나요? 벌써 올해를 3달 남겨두고 있는데요. 초심을 잃지 않고 여전히 열정이 가득가득한 아이들의 9월 모습을 살펴보실까요?

첫 주는 ‘신앙은 바르게 마음은 선하게 몸은 튼튼하게’가 진행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아이들의 몸을 튼튼하게 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하게 김성광 성도님께서 아이들에게 꼭 맞는, 아이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운동들을 준비 해 주셨는데요. 열정이 가득한 친구들이 때로는 저서 속이 상하기도 하고 이겨서 즐겁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서로서로 다독여가고 격려하며 참여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습니다. 끝나고는 전도사님께서 아이들에게 약속하신 햄버거를 먹으며 모두 즐겁게 마무리했습니다.

둘째 주에는 ‘도전1000곡’을 했습니다.

김성령 선생님께서 기존 찬양퀴즈와 더불어 다양한 버전으로 준비해주셨는데요. 이번에 아이들에게 가장 뜨거운 반응을 얻은 새로운 버전은 ‘선생님 율동’이었는데요. 생각보다 선생님들이 율동을 몰라서 살짝은 창피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율동을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찬양을 맞추는데 생각보다 찬양을 잘 부르고 빠르게 잘 맞춰서 놀랐었습니다. 그만큼 찬양을 많이 듣고 부른다는 것이겠죠?

셋째 주에는 ‘신문지게임’을 진행했는데요.

신문지에서 글씨를 찾아서 성경 말씀을 완성하는 게임입니다. 민이삭 선생님께서 많은 성경 구절을 준비 해 주신 덕에 많은 아이들이 함께 협력하여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유초등부 때 글씨를 만들어서라도 하려고 했던게 기억이 났네요. 1학년 아이들도 자신의 몸만큼 큰 신문을 보며 팀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넷째 주는 ‘**감사 릴레이**’였는데요.

저학년 친구들은 10가지 고학년 친구들은 20가지씩 자신이 감사했던, 혹은 감사한 일들에 대해 작성 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새로운 친구들이 많아서 세상 것들에 대해 감사한 것을 적을 줄 알았는데요. 아이들이 가장 많이 적은 감사내용은 바로 ‘교회에 올 수 있는 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이 마음 변치 않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주에는 ‘**건강식 만들기**’였는데요.

조은희 선생님께서 오랜만에 아이들과 소통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만들 건강식은 피클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밥상에는 김치가 올라가듯이 외국인들의 밥상에는 피클이 항상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에게 양배추, 오이, 파프리카, 연근 등 이 중에서 직접 원하는 재료들을 준비해 오도록 했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직접 (빵)칼로 재료를 손질하고 다된 피클은 통에 담아서 집에 가져가게 했습니다.

9월28일에는 저학년 친구들의 야외탐방이 있었는데요.

일산 킨텍스에 있는 상상체험 키즈월드라는 곳에 방문했습니다. 많은 에어바운스와 집라인, 회전그네, 장난감 물고기 잡기, 암벽등반 등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놀 수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요. 말 그대로 아이들을 위한 키즈월드였습니다. 아이들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줄을 서고 순서를 기다리며 질서있게 놀다 왔는데요. 집에 가는 길까지 쉬지 않고 장난치는 아이들의 에너지 넘치는 모습에 피곤한 마음도 있었지만 괜스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 성경숨은그림찾기



## 성경숨은그림찾기 14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출 5:1)

( 숨은그림 : 도장, 하트, 삼각자, 숫자 8, 요리사 모자 )

# \* 남는 것을 주마!

- essay.105 -



**\* 나의 소유를 나누지 못함이  
어쩌면 채워지지 않는 비밀일 수 있습니다!**



#MOTHER #POWER

#OOTD #selfie #fff







## 한글날

한글날은 우리말 한글을 만들어 세상에 낸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올해가 벌써 한글 반포 573주년이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여러 가지 훌륭한 업적을 남기셨지만 그중 가장 으뜸은 한글을 만든 일이 될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냥 왕도 아니고 대왕이라고 칭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우리 고유의 문자를 가지고 글을 적고 적혀진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모두 세종대왕과 함께한 학자들 덕분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한글을 그냥 세종대왕이 독자적으로 만드셨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모든 일은 혼자서 이룰 수 없듯 세종대왕을 보좌하고 같이 머리 싸매며 연구하셨던 학자 분들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한글날은 양력 10월 9일입니다. 조선어연구회가 주동이 되서 1926년 11월 4일 훈민정음을 반포한지 480주년이 된 해를 기념하고 이를 제1회 "가가날"이라 칭했다 합니다. 역사적으로 세종실록을 보면 1446년 음력 9월 훈민정음이 반포되었다고 역사되어 있고, 당시에는 음력 9월의 마지막 날이었던 29일을 가가날로 정하고 이를 기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27년 가가날이란 명칭을 한글날이라고치고 양력 날짜로 환산해 10월 29일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양력 환산법의 오류로 다시 정확한 양력 환산법을 적용하였고, 10월 28일로 정정하여 한글날을 기념했습니다. 그러던 중 1940년 훈민정음 해례본을 발견하게 되었고 집현전에 있던 대제학인 정인지의 서문에서 훈민정음을 반포한 날이 9월 상한으로 표기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9월 상순의 끝날인 9월 10일을 다시 양력 환산법을 적용해 본 결과 10월 9일이 나왔고, 지금까지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제정하고 기념하게 된 것입니다. 1949년 한글날을 공휴일로 정했다가 1991년 법정 공휴일이 아닌 기념일로 바뀌어 휴일로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기념일을 국경일로 지정하고 결국 2013년 법정 공휴일로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글날을 기념하게 된 것입니다. 한글은 물론 글자 그대로 우수함을 지니고 있지만,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의 애민정신 또한 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은 우리나라 말을 사용하였지만 이를 글자로 옮겨 전달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우리 문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한문을 이용해 서신을 전달하거나 기록을 남길 때 사용하게 됩니다.



# 개천절

10월 3일 하늘이 열린 날을 '개천절'이라고 하는데요. 올해로 단기 4348주년을 맞이한 개천절은 기원전 2,333년 단군왕검이 최초 국가인 고조선을 세웠음을 기리는 날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왜 단군왕검이 세운 고조선을 기리는지... 우리 기독교와는 완전 다른 모양새입니다.**

그럼 개천절의 유래를 알아보겠습니다. 개천절의 역사는 일제 강점기인 1909년으로 가야해요. 독립운동가였던 나철이 10월 3일 개천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경축일로 처음 제정하였는데요. 일본에 의해서 조선의 국권이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우리 민족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을 민족의 뿌리라고 하는 고조선과 단군에서 찾아낸 것이죠. 이후 1919년, 상해에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개천절을 국경일로 지정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개천절의 뜻과 유래를 통해 살펴보면 한민족 최초의 나라가 세워진 것을 기리고 우리 민족을 하나로 만드는 역할이었던 것이죠!!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개천절은 정식적으로 국경일로 선정될 수 있었어요~ 이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기에 우리는 국경일을 기억하고 기념하자는 뜻에서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월 3일 개천절! 우리의 국경일!! 단순한 휴식의 연장선으로 생각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개천절의 뜻과 유래도 알고 우리의 역사도 되돌아보니 많은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뜻과 유래를 공부해 두시면 좋겠네요~ 개천절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 사상과는 다른 신화적인 부분이 많아 이 지면에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여러분의 상식을 넓히기 위해 꼭 한번 공부 해 보시길 당부합니다~

## \* 어느 종말론자의 믿음

예수님이 오신다고 날짜를 정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00월 00일 날 오십니다.”

종말론 자 한 사람이 거리에서 외쳤습니다.

장난기 많은 집사님 한 분이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곧 휴거하겠네요!”

종말론 자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곧 천국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집사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선생님은 집이 있습니까?”

“그럼요! 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집사님이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집을 제게 주세요.

당신은 휴거하면 집이 필요 없을 것 아닙니까? 저는 아직 여기 살아야 하거든요!”

그러자 그 종말론 자는 화를 내면서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진짜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정말 자신이 확신하는 날 휴거 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집을 주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깊은 곳에서는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는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도가 착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고, 바르지 않다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성도가 마지막 순간에 사람보다, 생명보다 돈이나 물질을 선택한다면 그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성도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닌 잘 사는 사람입니다. 말로는 사람을 알 수 없지만 삶으로는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말로 지는 것이 아니라 몸과 삶으로 지는 것입니다. 남의 아픔, 고난 수고를 대신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겐 말하기 전에 지갑을 여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성도는 힘든 사람을 만나면 말보다 먼저 주머니를 여는 사람입니다.



## 훈육 & 폭력

훈육과 폭력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 사랑의 매를 들기도 하고 말로 꾸지람을 하기도 한다.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 매는 필요 하다. 하지만 그것이 과해지면 폭력이 되고 말로 꾸지람을 하는 것도 어느 순간 언어 폭력이라는 얼굴로 변한다. 그만큼 훈육과 폭력은 얇은 종이 한 장의 차이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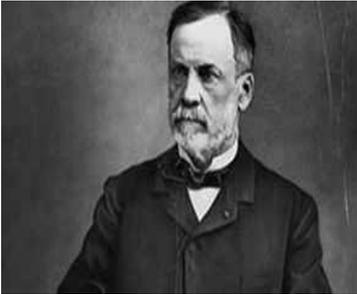


성경 말씀에 ‘매를 야기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심히 징계하느니라(잠 13:24)’

함과 같이 자녀를 훈계하매 매는 필요에 따라 들어야 하지만 무분별하게 들게 되면 그것은 한 아이의 자아를 망가뜨리는 폭력이 되는 것이다. 이 폭력이라는 것이 비단 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말과 얼굴 표정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칭찬과 격려의 말은 아이의 자아를 세워주며 자신감을 갖게 하는 착한 언어지만 아이를 비난하고 욕설을 하며 괴롭히는 것은 모두 폭력이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주님의 말씀같이 자녀가 올바른 것을 선택하지 못하거나 순종하지 못할 때 따끔한 훈육을 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나의 감정에 휘둘려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장애를 딛고 일어서다, 파스퇴르



파리의 고등사범학교에 입학해 미술을 배우고자 했던 파스퇴르는 대 화학자 뒤마의 강의를 듣고 화학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뒤늦게 화학의 매력에 빠진 그는 한창 연구 중이던 46세에 뇌출혈로 좌반신불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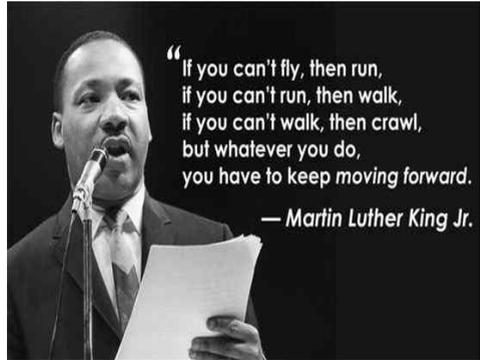
하지만 오늘날 '세균학의 창시자'라고

추앙받을만한 업적들은 놀랍게도 불편한 몸으로 이뤄낸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뇌출혈로 그는 남은 연구 인생에 탄탄대로만 기다리는 것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연구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불편한 실험기구가 개선되길 기다리지 않고 연구에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기상천외한 모양의 실험기구들이 속속 만들어졌는데, 특히 실험용 병을 백조 목처럼 늘어나게 고안한 기구는 훗날 '미생물설'을 증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의학이 발달하지 못해 특별한 원인이 없어도 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자연발생설'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포도주가 상하는 원인이 박테리아 때문인 것을 알아 낸 파스퇴르는 질병이 해로운 미생물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을 밝혔고, 마침내 탄저병 백신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파스퇴르가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혹시 이 병마 때문에 연구를 중단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할 수 있는 동안 더 많은 연구를 하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지금 모두 해 놓자는 생각으로 시간을 아끼며 연구에 몰두하였습니다. 미래에 어떤 불행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이 파스퇴르에게는 더 큰 촉매재였던 것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1955년 12월 '로자 파크스'라는 흑인 여성이 미국 남부 앨라배라 주에서 버스를 타고 있었습니다. 로자는 타고 내리기 편한 앞줄의 좌석이 텅텅 비어 있었지만, 뒷줄 좌석에 앉아야만 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버스와 좌석마저 백인과 흑인을 따로



구분할 만큼 흑인에 대한 차별이 극심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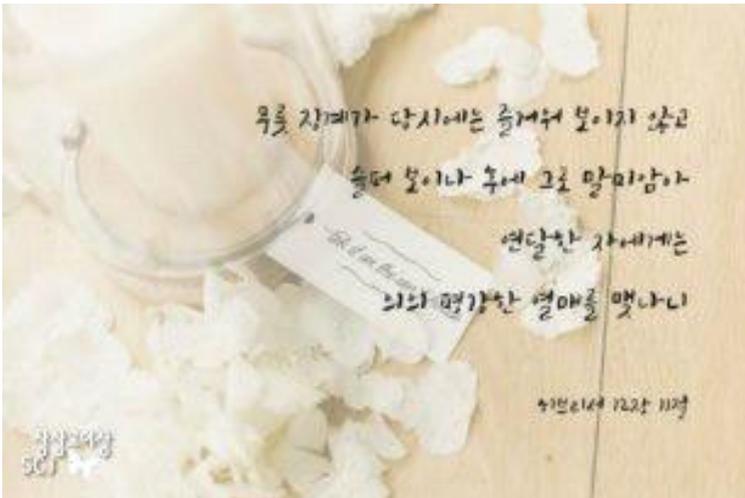
곧 많은 사람들이 버스에 올라타 버스 안이 매우 혼잡해졌습니다.

그리고 로자 파크스는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버스에서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녀가 체포된 이유였습니다. '흑인과 개는 출입금지'라는 낫말을 써 붙인 식당이 당당히 영업을 하던 그 시절 결국 흑인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폭력에는 폭력으로 갚아주자고 말하던 사람들을 만류한 사람은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었습니다. 킹 목사님을 중심으로 흑인들은 버스 안 타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출퇴근을 위해 몇 시간을 걸어야 했지만 흑인들은 평화로운 방법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평화 시위에 또 다른 폭력이 대응했습니다. 버스 안 타기 운동에 참여한 흑인들이 체포되고 킹 목사님의 집에는 폭탄 테러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킹 목사님의 노력과 의지는 멈추지 않았고 1963년 8월 28일 미국 워싱턴에 모인 25만 명의 군중 앞에서 연설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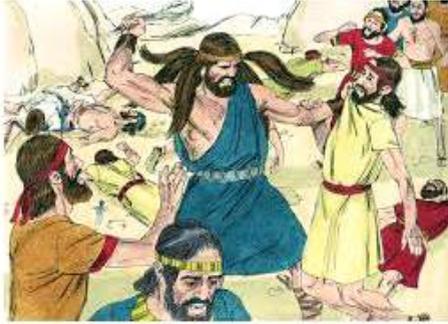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옛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 I have a dream )' 라는 역사적인 명연설이 있고 11개월 후 드디어 흑인들은 미국에서의 투표권을 얻고 차별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캉 목사님은 억압과 폭력 속에서 평생 살아왔지만 그의 마지막 역시 백인우월주의자의 흉탄에 안타까운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폭력이 아닌 사랑의 의지와 평화의 노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미움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 마틴 루터 킹 -



## 아비멜렉(Abimelech)



### 뜻 : 부친과 왕

[1] 그랄 왕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여 궁녀를 삼으려고 하다가 여호와가 금지하심으로 사라를 돌려 보내고 아브라함과 평화 조약을 체결하였다(창 20:1-21:). 아비멜렉은 "아버지(하나님)는 왕이시라"는 뜻이다. 기드온의 아들로써 명예욕이 강하고 욕심이 대단한 사람이었다. 정치적인 모략이 많아 그의 정권 장막은 무죄

한 사람의 피를 주고 사는 불의한 독재자였다. 그 모친은 기드온의 첩으로 가나안땅의 실력있는 집안의 딸이었으나 기드온이 생존할 동안 멸시를 받았었다. 이 어머니의 정신적인 피해의식이 그 아들 아비멜렉에게 물려진 것같다(삿 8:31). 나쁜 감정이나 원망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기르면 그 자녀의 인격형성이 아주 비정상적인 사람이 된다. 자기 아버지 기드온이 세상을 뜨자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사람과 결탁하여 은70개로 불량배를 매수하여 자기형제 70명을 반석위에서 살해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강제로 취한 통치력은 3년만에 무너지기 시작한다. 세겜이 아비멜렉을 반역하게 되었고 에벳의 아들 가알이 변절한 세겜과 동맹하여 아비멜렉을 공격하게 된다.

### ▷ 교훈과 적용 ◁

**첫째**, 한을 품은 정서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면 비뚤어진 사람을 만들게 된다. 그 장래를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둘째**, 자기가 뿌린 씨를 스스로 거두었다. 심은대로 거둔다는 원리가 얼마나 정확한가? 계교를 버리고 성실해야 한다.

\*\*\*\* 구약성경에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이 네 사람이나 등장된다.

(1) 그랄 왕 아비멜렉 =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그곳에 이주했을 때 사라를 아브라함의 누이로 오인하고 그녀를 취하려 한 자( 창21:22-34).

(2) 블레셋 왕 아비멜렉 = 이삭이 리브가와 함께 그랄 지방에 갔을 때 역시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내를 누이라 불렀다. 어떤 날 이삭과 리브가가 포옹하는 장면을 보고 그는 이들 부부를 불러다가 책망한 후 백성들에게 이들을 범하지 말도록 권고했다(창2 6:).

(3) 아비아달의 아들로써 다윗 왕 때의 제사장이었던 아비멜렉  
(대상18:16).

(4) 여기 말하고자 하는 아비멜렉은 사사시대 기드온(여름바알)의 아들이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몸에서 난 아들이 칠십인이었고 세겜에 있는 첩  
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삿8:30-31)

## 감사 릴레이

장명희 집사

23살에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호칭하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삶 속에는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통해 이겨 나갈 수 있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가장 연약한 자인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 할 수 있도록 일꾼으로 세워 주심도 감사합니다. 때로는 삶이 너무 버거워 일어서기 힘들었던 세월 속에 교회가 있었고 목사님과 사모님 전도사님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이끌어 주신 수고와 헌신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서 있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잠시 뒤 돌아봅니다. 눈물겹게 힘들었던 그 시절, 뿌리까지 뽑혀 버릴 것만 같아 더욱 간절히 지키고 싶었던 가정을 내 힘이 아닌 주님의 강하신 두 팔의 힘으로 지켜주심도, 그토록 원하고 원하며 기도했던 아름답고도 넓직한 장막도,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 응답으로 주신 사랑하는 아들의 직장도, 어린아이 같아 노심초사 했으나 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가장으로 손색없는 아들에 모습을 보게 되기까지도....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아울러 지금 저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자로, 또 섬길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보다 더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자 : 조명금 성도님

# 시사용어 Briefing

## 노멀크러시

화려하고 자극적인 것보다 소박하고 욕심 없는 삶을 지향한다는 걸 뜻하는 용어. 최근 소박함, 적당함과 관계가 높은 단어들인 우후죽순 우리 삶에 녹아들고 있습니다. (취계, 키포크, 소확행, 라곰, 팬츠드렁크, 미니멀라이프 등이 그 예임)

## 애빌린의 패러독스 (애빌린의 역설)

집단 내 구성원들이 특정 의견에 대해 서로가 속으로 반대되는 입장을 가졌음에도 집단 내 흐르는 기류와 특정 상황 때문에 자신의 입장과 상반된 결정에 동의하고 마는 것을 뜻하는 용어. 기업 내에서 주로 발생하며 상사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의견을 따르는 경우가 애빌린의 역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 데블스 에드버킷 (악마의 대변자)

위 애빌린의 역설에서 집단을 구원해 줄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데블스 에드버킷은 어떤 사안이나 의견에 대해 의도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취해 다양한 토론을 유도하며 동시에 집단 내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하게 만드는 이를 지칭하는 용어.

## 신포도기제 (자기방어기제)

한 여우가 배고픔을 참으며 먹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여우의 눈에 포도나무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포도는 매우 높게 맺혀 있었습니다. 여우는 포도를 따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결국 포도 따는 것을 포기한 여우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저 포도는 익지 않은 신포도였을 거야" 자기방어기제는 이 이야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즉 자신의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만의 합리화로 스스로를 방어하는 본능을 말하는 용어.

## 성경 가로 세로 퍼즐 <6회>

7		6			8		10		
5									
		1	1				7		
			2	2					
						9			
		3				6	8		11
5									
4			4						
			9						

### 가로 문제

### 세로 문제

	가로 문제		세로 문제
1	사도시대 유명한 유대인 학자 사도 바울의 은사 (행 22:3)	1	구약 마지막 성경책
2	다윗왕 때 유다 왕국에 거주한 갈렙의 후손 중의 한 사람 (대상 2:49)	2	제사장 가족 여호야다의 아들(대상 27:5)
3	바벨론에 남아 있는 포로의 예물과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슥6:10)	3	욥바에 있는 여신도로 죽었는데 베드로가 소생시켰다. (행9:36-40)
4	기계를 만드는 사람의 조상 (창4:22)	4	오래 참음
5	다윗에게 반역한 베냐민 사람 세바의 아버지 (삼하 20:1-22)	5	사라가 죽은 뒤 아브라함의 후처가 된 여자 (창25:1-6)
6	신약성경 다섯 번째 책 사도들의 행적	6	다윗의 30 용사중의 한사람 (삼하 23:25)
7	길리기아 다소사람으로 가말리엘 문하에서 율법을 배우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7	요나단의 아들로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죽이지 않고 요다단의 재산을 돌려주었다.(삼하 4:4)
8	고멜이 낳은 호세아의 둘째 아들에게 상징적으로 준 이름(호1:9)	8	요셉이 이 땅에서 양를 치고 있던 형제들을 만난 곳 (창37:17)
9	오늘의 다음 날	9	에돔인의 족장 르우엘의 아들(창 36:13)
10		10	아사왕은 이성의 방위를 튼튼히 하였대(왕상15:22).
		11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행위

◎ 이달의 교회소식

1. 특별새벽기도회 / 10월 8일~11일
2. 야외예배 / 10월 6일 오전 10시, 도문리동산
3. 권찰회헌신예배 / 10월 13일 오후 7:30
4. 가을여행 / 10월 14일 오전 9시 출발
5. 교회창립26주년 감사예배 / 10월 20일 오전 11시

◎ 공지사항

1. 10월 생활실천표어 / 네 삶을 비워라
2. 10월 신앙서적 / 종교개혁의 5가지 원리
3. 교회창립기념총동원대회 / 10월 7일~20일

◎ 이달의 교우소식

1. 결혼식 / 김정민청년 - 10월 5일 오후 2:30  
아펠가모 B2 채플홀



상담전화 받습니다.

이영주사모:010-7747-5278, 윤희자전도사:010-3066-0544

문서위원회

- 위원장: 김미진 집사  
 위 원: 박기숙 집사  
 이종희 집사  
 정현미 집사  
 전수현 집사  
 조은희 권찰  
 최하나 청년



† 31785 충남 당진시 백암로 132-37  
 ☎ 041) 352-5278, 356-5278, 357-9547(fax)  
 교회모바일웹 <http://www.djfgc.org/m/index.htm>